

고전의 이해

자유기고가 김춘겸

본래 고전(古典)이라는 용어는 고대 중국에서는 옛 의식(儀式) 내지는 법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한 민족과 시대의 소산일지라도 그 한정을 넘어서 인간 공통의 이해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예술적 완성도에 도달한 작품을 요즈음에는 고전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다.

언어나 그 장식이 가지는 개별적인 약정(約定)을 훨씬 뛰어 넘어서, 깊고 넓게 전망(展望)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후세의 인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의 조건과 숙명을 말하는 완숙한 언어의 예술을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전의 개념은 근대나 현대의 문학론의 산출만은 아니며, 서양에서는 그 발단은 BC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후 제정기(帝政期) 로마에 있어서 고전(classicus)의 어의(語義)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리스나 로마문학의 창조 전승 편잡 교정이라는 몇 세기에 걸친 끈질긴 작업을 통해 고전작가 및 고전작품군(群)이 선출되었다. 그와 함께 고전의 개념이 정립되어 후세에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고전경제학(古典經濟學)은 18세기 중반 이후 약

100년 간에 걸쳐서 영국에서 성립된 경제학을 말한다. 특히 A.스미스, 리카도, 맬서스, J.S. 밀 등이 그 대표자이다. 자유주의사상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자율성 있는 재생산(再生産)의 체제로서 파악하여, 그 구조와 법칙을 해명하였다. 처음에는 자본주의를 추진한 산업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론적 표현이었으나,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그 후의 경제학은 그 대부분이 이 학파를 비판하면서 생성되어 확립되어 나갔다.

고전극(古典劇, classical drama)은 고전주의 시대의 연극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극의 일컬음이었으나, 고대극의 이름에서 짜여진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문예부흥(Renaissance) 이후의 연극을 말하기도 한다. 특히 17세기 프랑스 연극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5막 운문극(韻文劇)으로, 하나의 사건이 하루만에 같은 장소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삼일치(三一致)의 법칙이 강조되었다. 삼일치법칙(three unities)이란 때, 장소,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고전극의 법칙이다. 상연형태는 병렬식(並列式) 무대였던 것이 17세기초 이탈리아식 극장의 영향으로 획기적으로

개혁되어 액자식(額子式) 무대로 바뀌어졌다.

프랑스의 극작가이며 시인인 코르네이유(P. Corneille: 606~1684)가 1637년 《르 시드》를 써서 고전극의 기초를 세웠는데, 1667년에는 프랑스의 비극작가이며 시인인 라신(J.P. Racine: 1639~1699)이 《앙드 로마크》 등으로 정념(情念)을 내재적(內在的) 숙명으로 삼는 연극의 새 바람을 일으켰다. 또 프랑스의 희극작가 몰리에르(Moliere: 1622~1673)는 《인간혐오(人間嫌惡)》 등 성격묘사 중심의 수준높은 희극을 수립하였다.

고전논리학(古典論理學)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시작되었고, 스토아 학파와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서 정비된 논리학이다. 일명 전통적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논리학은 보다 완전한 기호논리학(記號論理學)에 의해 대체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과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철학설에서 활용된 고전논리학의 유산적인 가치는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기호화(記號化)가 불충분한 대신 일상언어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문분야에서 오늘날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고전논리학은 명사(名辭, term) 내지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개념이 주어와 술어라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명제(命題) 내지 판단이 되며, 명제끼리 변형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매개념(媒概念, middle concept)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계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론(推論)과 추리가 구성된다고 보고 이것들 전체에 걸쳐 상세한 분류와 규칙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간접추리에서의 삼단논법 이론(syllogism)이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즉 대전제(大前提)와 소전제(小前提)의 두 명제로부터 새로운 명제인 단

안을 내리는 추리가 유행하게된 것이다.

고전주의(古典主義, classicism)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을 규범으로 하여, 균정(均整)된 형식미를 존중하는 문학 연구 예술의 양식을 지칭한다. 확고한 기법의 습득, 이성과 판단력의 중시, 보편적인 인간성의 연구, 형식의 확립과 장르의 엄격한 구별, 〈삼일치(三一致)의 규칙(three unities)〉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조화와 같은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실제의 작품에서는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천재의 정열이, 간명한 형식인 균정된 구성, 절도있는 문체와 긴장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이 균형 위에 고전주의가 성립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17세기 프랑스의 비평가이며 시인 보왈로(N. Boileau: 1636~1711)에 의해 완성되어, 1660~1680년은 프랑스 고전주의의 전성기로 몰리에르, 라신, 라퐁텐 등 가라성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18세기의 볼테르는 의(擬)고전주의로 볼 수 있다.

또, 프랑스의 영향 아래, 영국에서는 시인, 극작가 비평가이며 저관시인(1670~1688)을 지낸 드라이든(J. Dryden: 1631~1700)과 고전파시인 포프(A. Pope: 1688~174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독일에서는 극작가이며 비평가인 레싱(G.E. Lessing: 1729~1781)과 사상가 헤르더(J.G. Herder: 1744~1803)에서 고전주의적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중심으로 한 1750~182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음악을 일컫는 말이 고전파음악(古典派音樂)이다. 이를테면 형식을 존중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정서를 반영시키는 일이 드물어, 다음에 오는 낭만주의의 주관적 음악 창작태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또 작곡면에서는 기능화성의 조성원리(調性原理)에 입각한 단순 명쾌한 화음이 한 성부(聲部)를 이룬 선율을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많다. 곡상면(曲想面)에서는 주제의 대비와 전개나 변화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 심미관을 충족시킨 것으로 주명곡(奏鳴曲:sonata) 형식과 회선곡(回旋曲 rondo) 형식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순수기악곡으로서의 교향곡, 현악4중주를 중심으로 한 실내악곡, 각종악기를 위한 주명곡과 협주곡 등이 많이 쓰였다. 그리고 1740~1770년대의 음악을 바로크시대의 폴리포닉(polyphonic:多音)한

작곡법으로부터의 탈각시기로 보고, 그래서 전기고전파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또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대를 지칭하지 않고 <고전음악>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포퓰러 음악과 대응하는 호칭방법으로 클래식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파 음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결론적으로 고전이란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ancient ritual)으로, 뒷날에 영원히 남을만한 옛날 서적을 말한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대를 대표할만한 작품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그 가치가 남아있어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교양을 주는 것이다.

